

투데이 칼럼

북한 김여정의 말폭탄

김 여정 조선노동당 선전선동부 부부장의 수위 높은 '말폭탄'이 다시 시작됐다. 김여정은 3월 30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담화문을 발표했다. 타트는 문재인 대통령이었다. 2020년 본격적으로 불이 붙은 김여정의 분노는 올해에도 수그러들지 않은 모양새다. 그가 이번 담화문을 내기 전인 3월 26일 한국에서는 '서해 수호의 날' 행사가 있었다. 이날 행사에서 문재인 대통령 연설이 북한 지도부의 심기를 긁은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연설에서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를 언급하며 '대화 분위기에 어려움을 주는 일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우리는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준수하면서도 우리 자신을 방어하기에 충분한 세계 최고 수준 미사일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했다. 김여정은 "비논리적이고 후안무치한 행태는 우리 자위권을 유엔 결의 위반이나 국제사회에 대한 위협이니 결코 미국의 강도적인 주장을 달랑도 더할도 없이 빼앗은 꼴"이라며 "미국산 영무새라고 칭찬해줘도 노엽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0년부터 김여정은 우리 정부를 비난하는 담화를 줄곧 발표했다. 2020년 3월 미사일 도발에 대한 청와대 유감 표명에 강력히 반발했



정복구 논설위원·통일교육원

다. 6월엔 한국 측 탈북민들의 대북 전단 살포를 강력히 비난했다. 얼마 되지 않아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 그 뒤로 잠잠하던 김여정 담화문 정치는 2021년 들어 다시 기지개를 켜다. 1월 12일엔 우리 정부 관계자들을 일컬어 "특등 머저리"라고 칭했다. 그리고 3월 들어 다시 한 번 미사일 도발과 관련한 문 대통령 연설 내용을 꼬투리 잡았다. '미국산 영무새'라는 격한 어휘를 쓰며 한국 정부를 비판했다. 이때까지 북한은 '한국이 북한 입장에서 중재 역할을 할 수 있겠다'는 판단을 내렸다. 그리고 9월 평양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다시 열렸고 해를 넘긴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열렸다. 70시간 넘게 기차를 타고 하노이에 도착한 김정은은 회담에서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돌아갔다. 여기서부터 '한국 중재론'에 균열이 생겼다. 하노이 회담 이후 그

간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쌓아 왔던 신용도가 완전히 무너진 것으로 감지됐다. 2017년부터 2018년까지는 남북 정상 직접 만나 대화하는 방식으로 평화 무드가 조성됐다. 이때만 해도 북한 지도부는 '한국이 대북 제재 국면을 돌파하는 데 열쇠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을 것이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가 한반도 문제 중재자로 적극 나서면서 기대감이 커졌다. 그러나 남북 대화와 한미 대화 사이에서 북한과 미국의 이견이 드러났다. 점진적인 제재 완화와 일괄타결식 제재 완화를 두고 북한과 미국의 입장이 갈렸다. 그 중간에서 한국 정부의 중재가 애매했다는 인식이 존재했다. 아무것도 한국이 얘기한 대로 되지 않었다는 인식이 팽배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엔 흑시나' 했던 북한 지도부가 '이번에도 역시나'라고 느끼게 된 과정이다. 남북미 간 외교전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 가운데, 북한은 최근 미사일 도발을 통해 긴장 상황을 조성하는 모양새다. 사실상 문재인 정부 임기 말 마지막 남아 있던 남북대화 실패가 차단된 셈이다. 북한은 올린익 불참 결정을 통해 '코로나19 방역을 명분 삼아 북한이 대화 채널을 수거해가는 '밀고 당기기'를 시작한 셈이다.

기고문

신종 'SNS 계정 뺏기'에 대해 들어 보셨나요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비대면 사회문화가 발달해 가고 있다. 이에 따라 학교폭력 유형이 물리적인 폭력보다도 사이버 폭력으로 변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푸른나무재단(청소년 폭력예방 재단)은 이년부터 매해 전국 단위 학교폭력 실태를 조사하고 있으며 21년도 사이버폭력은 전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했다고 말한다. 일차적으로는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상황 때문이지만, 학교폭력이 관계적 공격으로 옮겨온다는 선행연구들의 근거로도 해석 가능하다고 한다. 사이버폭력을 가장 많이 경험한 하위 유형이 각각 언어폭력, 명예훼손, 따돌림에 집중되어있기 때문이다.

비방하는 말이나 욕설을 하여 마음의 상처를 주는 사이버 언어폭력 행위부터 대표적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카카오톡 단체방에 초대할 후 대상 학생만 빼고 방을 나가 따돌리는 행위인 일명 '방폭' 등 학교폭력 유형은 나날이 변질되어가고 있다. 이 중에서도 최근 상대방의 SNS 계정(주로 카카오톡)을 갈취해 부정한 사이트에 매개하는 'SNS 계정 뺏기'가 유행하고 있다. 이 유형의 범죄 발생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개인정보가 필요한 '업자'가 카카오톡 등 계정 매일 광고글을 SNS상에 게시한 것을 학생이 보게되고 다른 학생에게 계정 인증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여 갈취한 후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 업자와 학생 간 계정 한 개당 대



정재웅 익산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경사

략 3000원에서 2만원 사이에서 거래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판매된 계정은 스포츠 중계 어플(라이브 스코어), 불법 도박 사이트 및 성매매 광고, 주식 리딩방 홍보 등에 이용된다. 또한 그 계정은 정지되어 이용할 수 없게 된다. SNS계정은 다른 이의 손에 들어가게 되면 개인정보 유출

및 범죄 연루 가능성 등 어떠한 피해가 발생할지 모르는 귀중한 것이다. 다수가 무리를 이루거나 신체적으로 우월한 학생이 상대적으로 약한 학생에게 이와 같은 행위를 요구한다면 학교라는 공간에서 계속 마주쳐야하며 직접적인 폭력 피해까지 받는 상황도 연출되어 더욱 거절하기 힘들 것이다. 학생들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는 이 유도 여기에 있다. 청소년은 뜻풀이 그대로 푸른 일사 귀처럼 아직 성숙하지 못한 자라나고 있는 소년이다. 우리 모두가 변화되어가고 있는 범죄유형을 미리 인지하여 학생들에게 관심을 갖고 보듬어주어 방관자가 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사설

미사일 발사 이후 북한 외교

북한의 향후 외교 관계가 어떻게 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북한은 최근 자국민의 신병을 미국에 인도했다는 이유로 말레이시아 정부와 외교 관계까지 단절했다. 2017년부터 2018년까지는 남북 정상이 직접 만나 대화하는 방식으로 평화 무드가 조성됐다. 이때만 해도 북한 지도부는 '한국이 대북 제재 국면을 돌파하는 데 열쇠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을 것이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가 한반도 문제 중재자로 적극 나서면서 기대감이 커졌다. 그러나 남북 대화와 한미 대화 사이에서 북한과 미국의 이견이 드러났다. 점진적인 제재 완화와 일괄타결식 제재 완화를 두고 북한과 미국의 입장이 갈렸다. 그 중간에서 한국 정부의 중재가 애매했다는 인식이 존재했다. 아무것도 한국이 얘기한 대로 되지 않었다는 인식이 팽배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엔 흑시나' 했던 북한 지도부가 '이번에도 역시나'라고 느끼게 된 과정이다. 남북미 간 외교전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 가운데, 북한은 최근 미사일 도발을 통해 긴장 상황을 조성하는 모양새다. 사실상 문재인 정부 임기 말 마지막 남아 있던 남북대화 실패가 차단된 셈이다. 북한은 올린익 불참 결정을 통해 '코로나19 방역을 명분 삼아 북한이 대화 채널을 수거해가는 '밀고 당기기'를 시작한 셈이다.

일부를 내보냈다. 멕시코도 지금은 다시 북한 대사를 받아들였지만, 당시 북한 대사를 '외교상 기피 인물'로 지정해 자국을 떠나도록 했다. 북한은 최근 중국 이외의 사회주의 국가들과도 연대를 강화하고 있다. 실제 김정은은 쿠바 공산당 중앙위원회 제비서 라울 카스트로에게 구두 친서를 보냈다.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주석 응우옌 푸 중에게도 구두 친서를 보냈다. 중국에 대한 북한의 외교 그리고 경제적 의존도는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북한은 올해 노동당 국제부장에 중국통인 김성남을 임명했다. 주중 대사로 11년 만에 정치국 후보위원이자 대외경제 담당 부총리였던 리룡남으로 교체했다. 진전되지 않는 비핵화 협상과 장기화되고 있는 대북제재, 그리고 코로나19 사태는 여전하다. 급변하는 동북아 외교 지형에서 살아남기 위한 북한의 반미 외교 전략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청소년 야생동식물 보호단 나혁일 총재

한국청소년 야생동식물 보호단이 전북 도내 9개 학교에 야생화 화단을 조성했다. 청소년들이 우리 야생화에 대해 알고 이를 통해 우리 것에 대한 자긍심과 생명의 소중함을 알리기 위해 올해로 6년째 진행됐다. 이번에도 보급한 야생화는 채송화, 구절초, 옥잠화, 꽃잔디, 백리향, 수선화 등 총 31종이다. 전주 오송초를 비롯 군산용문초, 완주 봉서중, 이리계문초, 익산왕궁초, 정읍대흥초, 고창초, 장수신서초, 익산용산초 등에 만들어졌다. 1년 전인 2020 야생화 보급 대상 학교는 ▲군산 미장초등학교 ▲군산 서해초등학교 ▲군산 일피초등학교 ▲부안초등학교 ▲부안여중학교 ▲김제 덕암중학교 ▲고창 흥덕초등학교 ▲장계초등학교 등 8개교였다. 보급한 야생화는 할미꽃과 복수초, 금낭화, 맥문동 등 총 40종이다. 나혁일 총재는 "야생화를 보

급함으로써 학생들의 바른 인성을 도모하고 나아가 인간존중, 생명존중을 배우고, 청소년들의 바른 인성을 함양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청소년 야생동식물 보호단은 해마다 '동식물 큰잔치'를 열고 있다. 지도교사 매뉴얼 개발, 자연발랄 감시 체임, 야생동물 먹이주기 및 물고기 방류 행사, 희귀야생동물 서식지 생태학습 및 현장학습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일선 학교에 무궁화도 보급하고 있다. 현재 전북 도내 50여개 학교에서 1천여 명의 청소년들이 단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나혁일 총재는 30년 동안 전북 체육 발전에 매진했다. 현재도 대한체육회 부위원장으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 나 총재는 체육회를 마무리한 뒤에 사비를 출연해 사단법인 한국청소년 야생동식물 보호단을 설립했다. 지난 2019년 전라북도인물대상 환경봉사 부문에서 대상을 차지하기도 했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